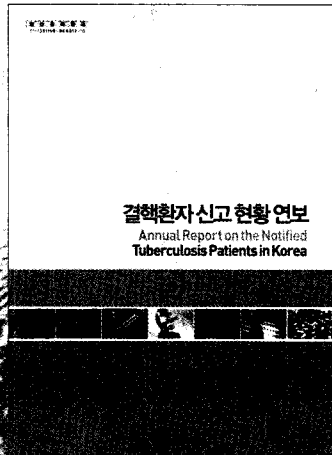


2009년 결핵 신고환자 현황



환자 유형별 현황

2009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결핵환자는 총 47,30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97.0명이었다. 환자 유형별로는 전체 신고 환자의 82.3%인 38,950명(인구 10만 명당 79.9)이 폐결핵이었고 폐외결핵은 17.7%인 8,352명(인구 10만 명당 17.1명)이었다. 폐결핵환자 중 도말양성 폐결핵 환자는 15,763명(인구 10만 명당 32.3명)으로 전체 신고환자의 33.3%를 차지하였다.

전체 신고 환자 중 환자구분별로 신환 35,845명(75.8%), 재발 5,624명(11.9%), 기타 2,802명(5.9%), 전입 1,775명(3.8%), 중단 후 재등록 896명(1.9%), 초치료 실패 환자가 51명(0.1%)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기타환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신고환자가 신고된 경우 자료 분석 시 '기타'로 재분류된 환자

(단위: 명)

구분	계	신환	재발	초치료실패	중단후 재등록	전입	만성배균자	기타	
전체	47,302	35,845	5,624	309	896	1,775	51	2,802	
폐결핵	활동성	38,950	28,922	5,020	309	826	1,558	51	2,264
	도말양성	15,763	11,285	2,381	172	400	640	34	851
폐외결핵	8,352	6,923	604	0	70	217	0	538	



성별, 연령별 현황

성별 분포는 남자가 전체 환자의 60.3%인 28,519명(인구 10만 명당 116.5명), 여자는 39.7%인 18,783명(인구 10만 명당 77.4명)으로 남자 결핵 환자가 여자 결핵 환자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전체 환자 중 70대 환자가 10,097명(21.3%)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7,433명(15.7%), 50대 6,968명(14.7%), 20대 6,944명(14.7%) 순이었다.

결핵 유형에 따른 성별 분포를 보면, 도말 양성 환자는 전체 신고 환자의 35.4%(10,013명), 여자의 30.1%(5,660명)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분포는 40-49세 환자의 35.3%(2,624명), 50-59세의 35.5%(2,476명), 60-69세의 35.5%(2,266명), 70세 이상의 39.8%(4,017명)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도말 양성 환자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전체 신고환자 중 인구 대비 10만 명당 신고 환자 수 기준으로 20대가 10만 명당 99.0명으로 1차 피크를 형성하여 이후 감소하다가 40대부터 다시 증가하여 70대 이상에서 인구 10만 명당 299.3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20대까지 상승한 환자수가 30대에 감소하여 40대에 다시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와는 달리 50대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성별 신고 환자율을 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남자환자가 여자환자보다 많았으나, 20대의 경우 여자환자가 남자환자보다 많았다. 결핵 유형별 분포에서도 전체 신고환자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

이 글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한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2009」에서 그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